

연변룡정팀, 상해가정에 0 대 0 무승부

—상해가정팀의 두터운 수비벽 뚫지 못하고 무득점



4 경기 연속 원정 마친 연변팀 1승 2무 1패로 5점 기록
4월 5일 홈에서 갑급리그 신참 중경동량팀과 격돌

3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상해시가정체육장에서 진행된 중국 갑급리그 제 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상해가정팀을 꺾어버리는 원정 2연승을 노렸으나 상대의 수비벽에 막혀 결국 0:0으로 비겼다.

전 3라운드 경기의 성적을 보면 갑급리그에서 올라온 대련영박과 운남 옥공이 9점과 7점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불산남사와 남경도시가 3점으로 13, 14위를, 료녕철인과 강서려산이 1점으로 15, 16위를 기록한 가운데 연변팀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1승 1무 1패로 4점 동점이어서 연변의 승패가 순위 차이를 크게 벌려놓을 수 있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상해가정팀은 1번 릉상을 문지기로, 6번 류박양, 35번 양귀업, 3번 요분, 5번 구정일, 2번 장연으로 수비선을 튼튼히 하고 33번 릉염, 7번 마그노, 8번 공순결, 16번 여룡빈으로 중앙선을 구축, 9번 시간을 전방에 출전시키며 5-4-1 진세로 맞섰다. 연변팀은 동가림을 풀키퍼로 내세우고 한광휘, 허문광, 왕봉, 서계조로 수비선을 구축, 왕박호, 리호걸, 리강, 왕성패로 허리계를 두텁게 했다. 이보와 로난을 공격선에 내보냈는데 지난 남경도시와의 4-4-2 진형을 한사람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전시켰다.

연변은 아직도 싸늘한 날씨의 이른 봄이지만 상해는 이미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날씨, 고온 속에서 두 팀은 서로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시탐전을 펼치는 듯하였지만 기실 경기 초반부터 기싸움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상해가정팀의 치밀한 공격 배합이 위협적이었던 로난과 이보의 배합도 만만치 않았다. 연변팀의 수비수 서계조가 코너킥 기회에 상대 금지구역까지 압박하면서 투지를 불태웠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다.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연변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연변팀을 응원하면서 흥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13분경, 왕박호가 금지구역 밖에서 침범당하면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한광휘가 올린 크로스를 왕박호가 솟구쳐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문 우로 날아갔다.

쌍방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해지면서 상해가정팀의 16번 여룡빈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 등 말리는 모습을 보였고 연변팀도 패스 실수로 후방기구가 위협받기도 하였다. 연변팀의 미드필더와 수비선, 공격선의 배합이 매끈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연변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연변팀의 공격에 힘

이 실리지 않는 원인이었다.

30분경, 로난의 침투가 위협적이었지만 돌파와 슛에 성공하지 못하고 코너킥을 얻어냈다. 그 코너킥을 리용한 상해가정팀의 반격이 되려 연변팀에 위협을 조성했다. 37분경, 상해가정팀 9번 시간의 강력한 슛이 골문대에 맞아가면서 동가림을 깜짝 놀래웠다.

연변팀의 공격이 상해가정팀의 치밀한 방어벽을 몇차례 뚫지 못하고 3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쌍방은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허리계서 공이 정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변팀은 후반 들어 천창걸로 리강을 교체 출전시켰다. 그러나 출전하자마자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49분경, 이보가 발동한 한차례의 공격에서 로난이 고사포 슛으로 절호의 기회를 날려보냈고 잇달아 있는 프리킥 기회의 헤딩슛도 골문을 명중하지 못했다.

중앙선에서의 공쟁탈이 갈수록 치열해졌는데 전반전에 비해 공방 질주가 현저히 빨라졌다. 상해가정팀은 연속되는 공격과 코너킥으로 연변팀의 허를 노렸고 연변팀은 로난의 공중우세와 충격력으로 상해가정팀의 수비선을 흔들었다. 로난도 한차례 공격에서 반칙으로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다.

72분경에 연변팀은 손군과 리달로 리호걸과 왕성패를 교체 출전시켰고 상대는 발기술이 뛰어난 에디로 시간을 교체 출전시켰다. 중앙선 쟁탈이 두 팀의 절박한 수요임을 잘 설명해주었다.

80분경에는 현지건으로 체력이 떨어진 한광휘를 교체하였다. 공격선에서 로난의 진공이 항상 한발자 혹은 반박자 늦은 차이를 무산되는 아쉬운 장면이 반복되었다. 아블레다가 그라운 리유였다.

90분경, 연변팀은 왕빈한으로 이보를 교체 출전시켰다. 8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상해가정팀은 시간 끌기 전술로 응부했고 연변팀은 상대의 공격을 외해시키는 한편 기회를 노려 공격을 조직했는데 끝내 뻔뻔한 방어벽을 뚫지 못하고 0대0으로 손잡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 4라운드 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5점을 기록한 연변팀은 오는 4월 5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장에서 지난해 을급리그에서 1위로 갑급리그에 올라온 중경동량팀을 상대로 제 5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특특 관전평]
이제는 홈이다... '연변팀 시즌 첫 홈장승 노린다'



'1승 2무 1패, 승점 5점.'
시즌 개막 4경기 연속 원정경기 치른 연변룡정팀이 드디어 4월 5일 홈장으로 복귀한다.

3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상해시가정체육장에서 진행된 갑급리그 제 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상해가정팀과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쟁겼다. 원정 4경기에 승점 5점을 손에 넣었다. 시즌 초반 연속적인 원정경기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 어려운 스케줄이었다. 이로써 작년 시즌에 비하면 꽤 괜찮은 원정 성적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강팀'소리를 들던 남경도시팀과의 경기에서 불굴의 투지를 선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던 연변팀이었던지라 상해가정팀과의 경기에 건 연속 승리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다.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 상해가정팀 홈에서 5-4-1 진영으로 수비벽을 두텁게 세웠다. 연변팀 역시 남경도시팀전에서 보여줬던 승부욕을 끌어내지 못하고 상해가정팀이 쌓아올린 수비벽을 무너뜨릴 묘책 또한 찾지 못하며 고전했다.

경기 당일 상해의 날씨가 체감온도 30도를 밑돌았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후텁지근한 경기에 미적지근한 경기력이었다.

연변팀은 이날 골 점유율 51%, 슈팅 10회(유효 슈팅 1회) 등 상해가정팀(슈팅 8회·유효 슈팅 1회)과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술통계표를 보면 경기력이 어땠는지 명확히 확인된다. 경기 90분 동안 두 팀 모두 단 1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으니 어쩌면 무득점, 무승부가 어울리는 경기였다.

다만, 홈장에서 무득점 무승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축구' 조짐을 보이며 시간 끌기에 나선 상해가정팀의 전략이 아쉬웠다. 반면, 이번 주 4월 5일에 드디어 홈장으로 돌아와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르는 연변팀에게 원정에서 실점없이 끝까지 승점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와 무게가 실린다. 큰 부상 없고 체력을 비축하면서 '마귀 홈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홈장에서 연변팀이 어떤 변신을 꾀할지, 어떤 경기력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쉬움 삼킨 장춘아태, 천진진문호에 0 대 1



3월 31일 오후 3시 30분, 장춘아태팀(이하 '장춘팀')은 장춘체육중심경기장(남령체육장)에서 펼쳐진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 제 3라운드 천진진문호팀(이하 '천진팀')과의 시즌 첫 홈경기에서 0대1로 패했다.

2024년은 '남령'이 건설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장춘팀이 이곳에서 출전하는 제 17번째 시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16시즌 동안 177경기를 치렀고 그중 103경기에서 승리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장춘아태축구구락부 총경리 증조봉은 '남령, 30'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2024 시즌 장춘아태팀 경기복을 장춘체육중심 주임 왕우강에게 증정했다.

추운 날씨에도 1만 5,000명 넘는 장춘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팬들의 환호 속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세를 점하는 듯했으며 몇번의 슈팅도 꽤 위협적이였다. 43분경, 천진팀의 슈코리치가 금지구역에서 넘어지자 주심은 과감하게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천진팀 용병 포파노가 안정적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천진팀은 1대0으로 앞섰다.

후반전에 들어 장춘팀은 반격에 나섰다. 60분경, 골문대를 때리는 등 수차례의 위협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쉽게도 동점골의 기회를 놓쳤다.

한편 팀내 조순족 선수인 원민성이 이날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장춘팀은 오는 4월 5일 15시 30분에 계속하여 홈장에서 상해화팀과 제 4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장춘여자축구팀 역전극으로 올 시즌 첫 승

3월 31일 오후 3시에 중국여자축구 슈퍼리그 2024 시즌 제 2라운드 경

기가 산둥성 조장문체중심경기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장춘대중학원여자축구

팀(이하 '장춘팀')은 산둥체육복원여자축구팀(이하 '산둥팀')과의 원정경



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두었다.

전반전에 산둥팀의 손박예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섰다. 후반전에 들어서 장춘팀은 동점골을 향한 노력을 가했으나 51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류정이 키커로 나서 골을 성사시키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 기세로 73분경에 또 한번 골망을 흔들며 점수를 뒤집었다. 최종 장춘팀은 산둥팀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경기후, 장춘팀 조창광 감독은 지난 경기의 무승부를 감안해 선수들도 이번 경기의 승리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전에 약간 조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원에서 문제가 생겨 경기 중에 만든 몇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다."며 "중간휴식시간에 조물을 거쳐 팀은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의 손에 장악하면서 두번의 득점 기회를 잡았다."고 경기를 평가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장춘팀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실력을 발휘했고 전반전에 점수가 뒤쳐진 상황에서도 기세를 몰아 끝까지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역시 천여명의 장저후지역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홈장 못지 않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